남원서 온정 넘치는 사랑 나눔 이어져

이환주 시장 비롯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나눔 전해

이환주 시장은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과 향토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103연대와 3대대, 경찰서를 방문해 군경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어 장애인 시설인 동북복지마을을 시작으로 포도원, 효성의 집 등 15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 나눔 릴레이에 남원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온정이 넘치고 있다.

먼저 이환주 시장은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과 향토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103연대와 3대대, 경찰서를 방문해 군경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어 장애인 시설인 동북복지마을을 시작으로 포도원, 효성의 집 등 15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추석명절을 맞았으면 좋겠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50만원을 시 주민복지과에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도 19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이 더욱더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였으며, 노암4통 박경문 통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백미(10kg) 100포를 전달했다.

금지면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적십자회, 남녀소방의용대, 농악단, 중화요리 전문점 금생춘도 현금 및 현물 등 성금품을 금지면사무소에 기탁했으며, 동충동 자치발전협의회도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상품권 50만원을 동충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 · 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위한 캠페인 실시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하늘중학교와 남원여고에서 '아동·여성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연대 소속의 남원시, 경찰서, 교육청, 남원의료원, 상담센터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력예방 홍보물 및 리플릿 전달과 폭력 인식과 관련한 OX퀴즈 응답을 통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또한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또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시, 경찰 및 상담소 등의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을 설명했다.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남원시, 남원경찰서, 남원의료원, 교육지원청,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YWCA통합상담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원성폭력상담소 등 11개 기관이 연계망을 구축해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농촌지도자 ·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진안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가 20일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회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광수련원에서 열렸다.

'함께여는 미래농업 더 크게 더 새롭게'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농업을 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농촌·농업의 발전을 인식하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 됐다.

특히 어울한마당 시간에는 체육경기와 노래자랑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한해 동안 농사일로 인한 피로를 잠시나마 해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대회장인 농촌지도자 손정현 회장과 생활개선회 박옥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진안군 농업인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농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더 크고 새로운 진안을 만들어가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진안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동계면 지협체, 추석 맞이 취약가구 대상 대청소 실시

동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지협)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홀몸 어르신 주거 취약가구를 선정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또 관내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활동도 벌였다.

이번에 선정된 홀몸 어르신 주거 취약가구는 그 동안 본인의 적극적인 거부로 청소는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여러번 설득 끝에 실외청소만 허락받아 동지협 주관으로 추진했다.

면사무소와 면 민방위대, 마을 주민 30여명은 이날 적치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박스, 사료포대 등 방치된 다량의 종이류와 음식물 쓰레기, 잡초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동지협 유일용 위원장은 "그동안 쓰레기로 쌓여있던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니 우리도 보람있고 어르신도 매우 고마워하셨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소방서장, 용남시장 등 현장방문행정 실시

남원소방서 조용주 서장은 지난 19일 추석연휴 대비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일환으로 용남시장 등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자율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이행 등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추석맞이 어르신 돕기 행사 참여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은 지난 19일 행복한 실버요양센터에서 추석맞이 어르신 돕기 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제이큐라이온스클럽(회장 이영희) 회원들과 함께 송편만들기 등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최지석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무주경찰,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0일, 무주IC 앞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무주군청, 한국도로공사, 녹색어머니회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맞이 귀성길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군민들의 교통문화의식 수준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캠페인과 더불어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풀어줄 '졸음방지 껌'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전달하여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윤중섭 서장은 "연휴기간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계도·단속 및 교통시설 개선 등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